

국립중앙박물관 '루브르박물관전' 18일까지 열어

“직접 보니 감동이 두배”

“어린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전에 온 것을 환영해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전(이하 루브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7일에도 어린이·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명작들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학부모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 중에는 아직 미술관 관람하기에는 좀 어린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아동들을 위한 루브르전 교육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40분, 2회씩 대강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브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 궁전을 지어 왕과 귀족들이 살았어요.”

프랑스 ‘파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 중 하나가 ‘루브르박물관’ 왕들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궁전 ‘루브르’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영상으로 미술작품을 엮은 역사도 배운다.

교과서 실린 명작 한눈에 아동들 위해 교육도 진행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변모된 사연은 듣기만 해도 인상적이다.

강당에서 외곽외곽 떠들던 어린이들의 눈과 귀가 강단 앞에 선 선생님에게로 향한다. 친근한 말투의 선생님이 이어 “신화가 뭐예요?”라며 문제를 낸다.

그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제우스랑 헤라’, ‘전설’, ‘단군신화’ 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쏟아진다. 어디에선가는 “가수잖아요!”라는 대답도 나와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화 중에 ‘그리스·로마 신화’가 있죠? 나중에 전시실에서 ‘프시케와 에로스’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사랑의 신 에로스와 아름다운 프시케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 때 에로스의 날개 뒤에 숨겨진 화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에로스와 프시케의 사랑이야기를 아는 아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궁금해서, 신화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서 모두 활짝 “네~”라며 대답한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통했다. 꼬맹이들은 특히 신이 났다. ‘프시케와 에로스(제라르 작)’의 무지갯빛 화살은 과연 설명 그대로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함께 빛났다.

문성원(서울이촌동·36)씨도 아들 세영(6)이를 데리고 루브르 구경에 나섰다. “아들이 이번엔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아하네요.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아이에게 루브르박물관 미술품을 보여준 셈이예요.”

“프시케와 에로스” 만큼 아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 또 있었다. ‘헤어 도련님(레이놀즈 작)’이다. 문성원(서울이촌동·36)씨도 아들 세영(6)이를 데리고 루브르 구경에 나섰다. “아들이 이번엔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아하네요.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아이에게 루브르박물관 미술품을 보여준 셈이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 ‘프시케와 에로스’를 관람하는 어린이들의 눈빛은 남달랐다.

“와, 여자 옷 입고 있는데 무슨 도련님이라!”

“너도 치마 입고 싶지?” “절대로 싫어!”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관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 골슬머리에 드레스를 입고 해맑게 미소 짓는 ‘헤어도련님’ 앞에서는 잠시 소란스러워도 웃어넘길 수 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번 전시

는 매력적이다. 낭만적이고 고전적인 루브르전이 청소년 특유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들라크루아, 제리코 등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들과 컨스터블, 터너 등의 영국 화가들의 작품 앞에서 서있지만 해도 가슴이 설레기 마련이다.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지예와 성미(서울 동대문 여중 3)는 작품들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품 수가 많지 않다고 들어서 실망하면 어쩌나 했는데, 미술책에서만 봤던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니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이번 전시에서 미술관람 교육을 받고 있는 남근아 선생님(GNC 미디어)은 아이들에게 ‘루브르 박물관전’을 더 의미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되면 좋다고 충고한다.

“이번 전시는 무조건적인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작품을 배치했어.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전시입니다. 관람을 하기 전에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청소년 이상은 신화를 읽고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을 하세요.”

이번 전시는 3월 18일까지 계속되며 4월부터는 프랑스의 또 다른 세계적인 박물관인 ‘오르세 박물관전’이 열린다. (02)2077-9648 글·사진=김정진 객원기자



나폴레옹 초상 앞에서 주의깊게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경남 통영에서는

통영국제음악회가 열린다. 3월 23일 크로노스 파르렛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음악회에서는 일동민, 클로드 불링 박밴드 등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뮌헨 챔버오케스트라가 준비했다. 3월 23일~29일까지. (055)642-8662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늘배움 아카데미’를 준비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강연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3월 19일 첫 강연의 초대 손님은 한국의 대표 석학 이어령씨. ‘도시의 삶과 문화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051)749-5633

강원 횡성에서는

전통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2회 태기문화제’가 열린다. 행사는 태기제례, 농요 및 민요 대회, 인기 영화 상영 등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는 고부떡만들기, 연날리기 시범 등이 진행된다. (033)340-2546

경기 광명 어린이 도서관 청개구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열고 지역사회의 명망가가 함께하는 도서관 특색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꿈을 길러주고 있다. 대상은 유아·초등학교생이며 청개구리도서관 자원활동가 및 지역 인사들 서 릴레이들이 진행을 맡는다. (02)2619-6148

용인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07 상반기 놀도 프로그램으로 ‘역사가 나오너라’책속에서 배우는 주제별 역사교실’을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용인시제 초등학교 어린이이며 3월 10일~6월 23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계속된다. 신청은 용인시립도서관 홈페이지(yonginlib.or.kr)에서. 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 선착순 마감.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이정연·문선비양 만해백일장 대상 수상

한마음선원 지도교사상 선정

대한불교청원회(회장 박법수)가 3·1절을 기념해 3월 1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28회 전국 만해 백일장’에서 이정연(기전여고2) 문선비(보성여고2)양이 각각 시·시조 부문과 산문부문에서 만해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또 장원에는 시·시조부문에 김현진, 윤지영(광명

북중3) 추윤진(내정중 3) 김진규(안양예고3) 정상조(조재연(명지대1), 산문부문에 박수빈(의왕덕성초5) 노윤아(서울 남성중 3) 정다솔(광명북고3) 이진송(이화여대1) 임민혜(고려대 2)씨가 수상했다.

또 시·시조 부문에 우보경(효제초2) 정은영(매원중3) 이정환(동화고3) 이수미(한양대1), 산문부문에 정지훈(은석초6) 조혜수(휘경여중3) 이혜나(송호고 3) 서상희(잠실여고3) 이정혜(순천대2)씨가 우수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장려상 시 시조 부문에는 초등부 조우영(인천불초3)의 15명, 중등부 김하연(동아여중3)의 9명, 고등부 김경(안양예고2)의 14명, 대학부 박선영(건국대1)의 6명, 산문 부문에 초등부 우성경(서울 수색초5)의 13명, 중등부 이혜원(정신여중 3)의 9명, 고등부 박민정(포항영일고 1)의 14명, 대학부 전민영(경희대2)의 8명이 수상했다.

특별상 지도교사상에는 한마음선원 지도교사들이 선정됐다.

김원우 기자

불교명상지도자양성



보현 김옥자 박사
(세계불교명상센터 원장)

-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3)신체허약·정신 빈곤·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 ① 일반과정 : 건강·두뇌개발·단주·금연·비만클리닉 - 제 1차 3개월
- ② 전문과정 : 건강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계불교명상센터



법민스님
(몽골 다시요령)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